

題:

KR044kr

名前:

「기독교」은 시대가 변해도 잊혀지지 않는
것이다.」
최근, 인터넷의 발달로 뉴스를 컴퓨터
의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.
그로 인해,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
지나 같은 기록물은 이제 더 이상 필요
하지 않게 되기도 모른다고 생각한다.
그러나 나는 모니터를 통해 보는 뉴
스 기사보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보는
것이 더 좋다. 「기독교」이라는 것은 옛
날부터 문자가 발명된 이후 존재해왔
것이다. 옛날사람의 「기독교」이 많았으며
지금의 우리가 옛날사람들이 어떤 일을
했는지,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알 수 있
는 것이다. 즉, 「기독교」이라는 것은
보조만 잘 되어 있다면 후세의 사람들에게
매우 중요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다.
물론, 인터넷 상의 기사도 자랑할 나
소일 동안 보조할 수 있게끔만, 종이 매
체가 보조할 것들보다는 가치가 떨어지

다고 생각한다.
또한, 모니터를 통해 볼 기사보다 신
문이나 잡지를 통해 볼 기사가 기억에
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,
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면서 무거움, 풍
하라고 생각하듯 부푼 밑줄을 치거나
볼 수 있기 때문이다.
컴퓨터로 보는 기사는 인터넷이 정
되는 곳 어디든지 볼 수 있다는 편리
함이 있지만, 이 기사를 스크랩해
오랫동안 간직하고 보을 때나 자세히
밑줄을 치거나 읽고 보을 때는 그
유행이 떨어지라고 생각한다.
나라 같이 생각하듯 사람이 한 사
이로도 있다면, 아마도 기록물은 적
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.

1800字